

정답	01 ③	02 ④	03 ④	04 ①	05 ⑤	06 ②	07 ④	08 ①	09 ⑤	10 ③
	11 ③	12 ⑤	13 ①	14 ④	15 ④	16 ⑤	17 ②	18 ③	19 ②	20 ①
	21 ④	22 ④	23 ④	24 ①	25 ②	26 ②	27 ①	28 ②	29 ②	30 ③
	31 ①	32 ④	33 ①	34 ②	35 ⑤	36 ⑤	37 ③	38 ⑤	39 ③	40 ③
	41 ③	42 ④	43 ②	44 ②	45 ③	46 ⑤	47 ⑤	48 ①	49 ⑤	50 ③

출제 경향

듣 기

전체적으로 볼 때 듣기는 평이하게 출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시문은 발표, 인터뷰, 강연, 토의 등으로 구성되었고, 들려주는 내용은 전문적인 분야라기보다는 일상적인 내용이다. 불꽃 놀이의 원리, 가고 싶은 대학, 대화의 방법, 기부 문화 등을 화제로 하여 내용을 구성하였다. 문제 유형은 크게 보아 둘로 나눌 수 있는데, 들려주는 내용을 듣고 정보를 확인하는 문항과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문항으로 대별된다고 할 수 있다. 듣기 성적은 결국 들려준 내용을 얼마나 사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문제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쓰 기

이번 모의평가 쓰기 영역에서는 연상 내용의 적절성 여부, 주제에 맞는 자료의 수집과 활용 방안, 조건에 맞는 적절한 글쓰기, 글쓰기 계획의 보완 및 수정, 고쳐 쓰기 문제가 출제되었다. 이중 연상 내용의 적절성 판단 문제는 글의 내용과 각 주제에 따라 쓸 내용을 적절하게 연결 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로, 제시된 <보기>의 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로 주목할 만하다. 수집된 자료를 활용 문항과 조건에 따른 표현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 결합되어 출제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요를 수정 보완하는 문제와 글쓰기를 적절하게 계획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은 서로 교차하여 출제가 되어 왔었는데, 두 유형의 문항이 하나로 통합되어 출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유형은 기존 기출 문제에서 제시된 바 있었기에 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번 모의평가의 쓰기 영역 문제 유형은 기존 문제의 유형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어렵지 않게 출제되었다. 제시된 자료의 양은 많아졌지만 자료의 핵심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의외로 쉽게 풀리는 문항 구성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 어휘 · 어법

어휘 문제의 경우, <보기>를 통해 ‘다지다, 뺏다, 썰다, 찢다’란 단어의 의미를 구분해 볼 것을 요구하는 문제였다. 또한 어법 문제의 경우 표준 발음의 이해와 적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 문 학

• 시가 복합

6월 모의평가에서는 현대시와 장르 복합으로 문항을 구성하여 출제했으나 9월 모의평가에서는 시가 복합 방식으로 출제하였다. 김소월의 ‘길’과 이신위의 ‘단가 육장’은 EBS 수록 작품이다. EBS 교재 내용을 반영하여 출제한다는 원칙을 그대로 지키고 있다. 문제 유형은 공통점 찾기, 상황과 정서의 이해, 내적 준거와 외적 준거에 의한 감상, 비교 감상하기 등 기본적인 문제들이 출제되었다. 18번 문제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평이한 문제였다.

• 고전 소설

EBS에 수록된 바 있는 ‘김원’전을 출제하여, EBS를 반영하여 출제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보이는 지문이었다. 정확한 줄거리 파악을 하고 있는가를 묻는 21번과 상황에 맞는 적절한 한자성어를 찾는 24번의 경우 매우 쉽게 출제가 되었다. 22번과 23번의 경우에는 작품의 구조에 대한 외적 정보를 <보기>로 주고, 이를 ‘참고’ 또는 ‘바탕’으로 작품에 대한 심도 있는 감상을 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다. 그러나 내용 확인의 측면에서 거의 문제가 풀린다는 점에서 난이도는 높지 않고, 흔히 출제되던 유형이라 볼 수 있다.

• 희곡

작품 자체는 다소 생소한 편이지만, EBS에 수록된 작품이고 내용 자체도 평이한 편이었다. 문제의 유형도 전형적인 것들이 출제되었고 특히 정답의 근거가 분명하여 학생들 입장에서는 무난한 편이었다고 할 수 있다.

• 현대 소설

EBS에 수록된 작품으로 내용은 평이한 편이었다. 다만, 38번 문제는 <보기>의 관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소재나 공간의 의미를 주변 문맥까지 고려하여 정확히 이끌어 내어야 한다는 점에서 까다로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독 해

• 과학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는 구체적인 현상으로서의 ‘사막’을 제시하고 이러한 자연 현상이 생겨나는 원리나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설명하는 글이 출제되었다면, 이번 모의평가에서는 다소 추상적인 ‘시간 개념’에 대한 지문이 출제되었다. 지문의 길이가 짧고 비교적 추상적이었던데 반해 내용은 핵심 위주로 서술되어 면밀한 독해가 요구되는 지문이었다. 출제된 문항들도 지문의 핵심적 내용을 적절하게 이해하여 실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거나, 아인슈타인의 입장에서 뉴턴을 적절히 비판할 수 있는가를 물어 지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는가를 심도 있게 평가하고 있다.

• 언어

언어의 특징들을 다루던 기존의 경향과는 달리 독서 방식의 변천사를 소재로 삼은 글을 출제하였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등장한 다양한 독서 방식들(음독, 묵독, 다독, 검색)의 특징을 비교하면서 읽어나간다면 그다지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 할 수 있다.

• 사회

환율과 경상 수지의 관계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J커브 현상’ 등을 통해 소개하고 있는 글이다. 개념을 소개하는 글이기 때문에, 독해 시 명확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문제를 풀어내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특히 시각 자료에 적용하는 문제가 늘고 있는 현 추세를 감안한다면, 이러한 지문은 비문학에서의 변별력을 결정할 것으로 볼 수 있다.

• 예술

서술상 특징을 묻는 기본 문제, 제시글의 내용을 다른 경우에 적용해서 판단하는 문제, 추가 정보를 주고 지문의 내용과 엮어 사고하는 활동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문제 등 다양한 문항이 출제되었다. 서로 다른 단어를 공통적으로 대치할 수 있는 어휘를 묻는 문제는 자주 묻는 문제는 아니어서 이채로웠다. 또한 제시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에 나타난 활동을 다양하게 해석하고 평가하는 고난이도 문항으로써 수험생의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려고 하였다.

• 인문

이번 모의평가에서 출제된 인문 지문은 기존에 주로 역사나 철학과 관련하여 특정 개념이나 대상과 관련된 글이 출제되었던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현대 철학(윤리학)의 주요 흐름 중의 하나인 공리주의의 기본적인 성립 요소와 그 성격을 이해함과 동시에 그와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이론과 대비하여 지문을 독해하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수능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인문학적 철학 개념에 대한 기본 원리를 제시하는 글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구체적으로는 전통적 공리주의의 세 가지 요소를 설명하고, 이에 대해 대립되는 견해를 가진 이론가의 반론을 제시한 후, 그 반론에 대한 공리주의자들의 대응 방식을 ‘규칙 공리주의’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 기술

이번 모의평가 기술 영역은 기존에 출제된 기술 지문들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실용 기술의 원리를 설명하는 글이 지문으로 출제되었다.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가치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기술 형성의 과정이나 장치의 구성 원리, 혹은 장치의 장단점 등을 제시하는 기술 지문의 의의를 그대로 살린 지문이라 하겠다. 세부적으로는 우선 가스 센서 기술의 의의와 대표적 기술인 저항형 가스 센서의 장점을 소개하고 그 장치의 구성 요소와 성능 평가의 기준 등을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출제 문항 분석

문항	출제 영역	출제 의도
1	듣기	세부 내용의 이해
2	듣기	공동 견해의 파악
3	듣기	구체적 상황への 적용
4	듣기	정보의 사실적 확인
5	듣기	말하기 방식의 파악
6	쓰기	연상 내용의 적절성 평가
7	쓰기	자료의 활용 및 개요의 수정
8	쓰기	조건에 따른 표현의 적절성 평가
9	쓰기	글쓰기 계획의 보완 및 수정
10	쓰기	고쳐 쓰기의 적절성 평가
11	어휘	어휘의 이해와 적용
12	어법	표준 발음의 이해와 적용
13	시가복합	공통점 찾기
14	시가복합	정서와 상황의 연관성 이해하기
15	시가복합	내재적 감상
16	시가복합	비교 감상하기
17	시가복합	외적 준거를 활용한 시구 이해
18	시가복합	화자와 대상과의 관계 이해 및 적용하기
19	과학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20	과학	비판적 추론
21	고전 소설	구체적 사실 확인
22	고전 소설	외적 준거를 통한 판단
23	고전 소설	외적 준거를 통한 판단
24	고전 소설	상황에 적합한 한자 성어 이해
25	언어	내용의 사실적 이해
26	언어	내용의 추론적 이해
27	언어	독자의 비판적 반응
28	사회	내용의 사실적 이해
29	사회	시각 자료를 활용한 내용의 추론적 이해
30	사회	근거 이유 추리
31	사회	어휘
32	희곡	인물의 심리와 태도
33	희곡	표현상의 특징
34	희곡	다른 매체에 적용하기
35	현대 소설	서술상의 특징
36	현대 소설	인물의 성격
37	현대 소설	인물의 심리
38	현대 소설	외적 준거에 의한 감상
39	예술	서술 방식
40	예술	추론
41	예술	관점, 태도
42	예술	자료의 이해
43	예술	어휘
44	인문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45	인문	추론적 이해
46	인문	외적 준거와 비교를 통한 이해
47	기술	어휘의 이해
48	기술	세부 정보의 확인
49	기술	사례에의 적용
50	기술	구체적 자료를 통한 이해와 적용

📌 학습 대책 📌

❖ 듣 기

듣기 영역은 들려주는 내용이나 형식에 큰 변화를 주기 어려운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지나치게 전문적인 내용을 들려줄 수 없고, 형식 역시 대화와 독화를 범주를 넘어서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집중력만 유지한다면 어렵지 않게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들려주는 내용을 듣기 전에 발문을 확인하고 무엇을 묻는 문제인지를 숙지한 후 듣는 태도를 가지며, 내용을 들으면서 메모를 하거나 오답지를 걸러내는 습관을 익히는 것이 가장 평범하면서도 최선의 대응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혼자서 모의고사를 풀 때에 듣기 영역은 배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시문을 듣지 않고 읽고 답을 하더라도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음으로써 듣기의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자.

❖ 쓰 기

이번 모의평가의 쓰기 영역은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되었다. 쓰기 문제는 글쓰기의 기본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쓰기 영역은 내용 연상, 글쓰기 계획과 보완 및 수정, 자료의 수집과 활용, 개요의 작성과 수정, 고쳐 쓰기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물어보는 방식으로 출제된다. 때로는 위에서 제시된 글쓰기 단계가 결합되어 출제되기도 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특정 선택지를 통해 자료나 개요에 접근하지 말고 차분하게 제시된 자료나 개요를 순서대로 즉 논리적 순서를 따라서 읽어 가야 한다. 그리고 각 쓰기 유형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략을 세우고 자료와 제시된 내용에 대한 논리적인 사고 훈련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어휘 · 어법

어휘와 어법은 계륜(鷄肋)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 학습을 하자니 막연하고, 무시하자니 마음에 걸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의 밑바탕에는 어휘 · 어법에 대한 자신감 부족이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휘 · 어법 영역은 수험생의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해력과 적용력을 묻는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보기>로 주어진 내용을 꼼꼼하게 읽고 그것을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어렵다고 느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번에 출제된 문제도 예외는 아니다. 지극히 기본적인 어휘를 대상으로 출제하였고, 어법 역시 일상적인 발음법을 물었다. 다만 기본적인 어법 지식을 익혀두는 태도와 평소에 어휘를 찾아보는 습관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도 틈틈이 어법과 어휘에 관심을 갖고 문제를 푼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문 학

이번에 출제된 문학 영역의 네 세트 중에서 시가 영역의 한 작품, 즉 백석의 <적막강산>을 제외하고는 모두 EBS 문제집에서 제시문을 가져왔다. 물론 제시문이 EBS 지문과 완전히 겹쳐 지지는 않고 다른 장면이 제시되거나 일부가 겹치는 형태로 출제되었다. 올해 수능에서는 이번보다 더 많은 비율로 EBS 문제집을 활용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 수준을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문학 영역에 대응할 것인가.

먼저 시가 영역은 EBS 문제집의 작품과 출제 작품이 동일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EBS 문제

집의 시가 작품들을 최소한 한 번씩은 일별하면서 익혀둘 필요가 있다. 상황, 정서, 태도, 표현 방법, 사상 전개 방식, 주제 등을 중심으로 시가 작품을 정리하는 작업을 해 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작품을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매우 크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소설을 비롯한 서사 영역은 EBS 문제집의 장면과 문제보다는 작품 전체에 대한 이해력을 길러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에 출제된 고전소설 <김원진>의 경우 장면을 달리하여 출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항 역시 <김원진>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력을 가져야 풀 수 있는 요소를 바탕으로 하여 구성하였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출제된 현대소설과 희곡 역시 마찬가지다. 작품의 전체 줄거리, 인물 사이의 관계, 구성 방식, 갈등의 핵심, 주제 등을 중심으로 하여 작품에 대한 정리를 해 두어야 대응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제시문이 EBS를 중심으로 하여 출제된다는 것은 확실하게 검증되었고 예상되는 사실이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EBS 문제집의 작품들을 어떻게 요리하여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일이다. 중요한 작품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읽고 핵심 사항을 정리하는 과정이 문학 영역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의 요체라고 할 수 있겠다.

❖ 비문학

비문학 영역은 글 전체를 읽고 글 쓴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각 문단의 핵심을 짚어내는 능력이 중요하다. 특히 고득점을 위해서는 지문을 분석해내는 분석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림이나 그래프를 제시되거나 <보기> 자료를 통해 지문을 평가하는 문항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지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보기>나 그림, 그래프와 관련된 지문의 내용을 대응시키면서 이해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이번 모의평가에서 EBS 교재에 실려 있는 지문의 연계성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근거는 없다. 왜냐하면 비문학 영역에서 EBS 지문은 비슷한 문제 의식을 지닌 제재를 활용하는 형태로 출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평소에 공부할 때 지문에서 제시하는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고 문제에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이번에 출제된 비문학 6세트 중에서 과학, 언어 지문이 평이했던 반면 사회와 예술, 기술의 경우 3점 문항(29번 문항, 42번 문항, 50번 문항)과 인문의 45번 문항은 지문과 <보기>, 그래프에 대한 심층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문항이었다.

과학 지문의 경우 뉴턴의 시간의 절대성 개념과 이를 거부한 아인슈타인의 시간의 상대적 개념이 지문으로 제시되었다. 2010학년도 수능과 6월 모의평가의 과학 지문과 비교하여 지문의 길이에 따라 문항 수도 유연하게 구성되었다. 지문 내용에 대한 문단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논리적 연관을 그대로 따라 갔다면 배경지식이 없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언어 지문은 독서 방식과 연관된 읽기 방식이 통시적으로 어떻게 현재까지 변화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글이 지문으로 제시되었다. 지문을 구조적으로 독해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항과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을 물어 보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언어 영역의 경우는 제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기출 문제의 언어 영역 문제에 나와 있는 제시문을 정독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언어영역에서 배경지식을 물어보지는 않지만 어법 영역과 연관지어 최소한의 언어학적 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

사회 지문은 환율의 변화와 경상수지의 상관 관계를 밝히는 지문이 제시되었다. 세 개의 문항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지만 29번 문항의 지문을 활용한 <보기>의 그래프 해석 문제는 상당히 까다로웠다. 평소에 <보기>나 그림, 그래프와 관련된 지문의 내용을 대응시키면서 이해하

는 능력이 요구된다. 특히 글의 세부적인 내용에 집착하는 읽기가 아닌 전체적인 맥락을 찾아가는 읽기를 해야 한다. 주제, 문단의 핵심 요지와 맥락의 문제는 매번 출제되므로 글 전체의 핵심적인 부분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제시된 지문 내용을 적용하고 활용하는 문제의 경우에는 문단의 문장을 하나하나 그림이나 표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연습이 요구된다.

예술 지문의 경우에는 지문의 길이는 기존 기출 문제에 비해 비교적 짧은 편이었다. 하지만 42번 문항의 경우처럼 실제로 제시된 <보기>를 직접 지문에 근거하여 계산해야 할 때도 있다. 정보를 대충 훑어 보고 풀려고 하서는 풀리지 않는 문제 유형이다. 직접 약분도 해 보면서 비례식을 변형해야 한다.

인문 지문은 문단별 핵심 내용을 찾아내면서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내용 일치나 글의 세부적 이해와 관련된 문제도 사실은 글의 핵심적인 논지와 관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기술 지문의 경우 최신 기술의 핵심 원리나 작동 방식을 물어보는 지문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기술 지문의 경우 제한된 시간 안에 주어진 모든 정보를 이해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제시된 기술의 핵심 원리를 파악한 뒤 문항에 맞추어 지문에 제시된 정보를 찾아가는 것이 방식의 접근이 요구된다.

남은 기간 수험생들은 지문의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문제를 풀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비문학 지문의 핵심을 빠르게 잡아내는 훈련이 요구된다. 한편으로 고득점의 관건은 고난도 문제 3~5문항을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있다. 표와 그림, <보기>를 활용한 문제를 지문의 내용과 대응시켜 가면서 집중적으로 학습해야 한다.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문제, 특정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는 지문에 대한 분석력을 얼마나 키우느냐에 수능 고득점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해설

[01~05] (듣기)

01 세부 내용의 이해 ③

불꽃놀이를 화제로 한 내용이다. 학생의 발표 내용에서 ‘별’을 배치하는 순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 오답 피하기** >> ① 서두 부분에서 공중으로 쏘아 올리는 물체인 ‘꽃불’의 개념을 설명하였다.
 ② 개화 시간의 결정 요인으로 ‘꽃불의 크기와 도화선의 길이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다.
 ④ 불꽃의 색깔 변화 원리로 ‘별 안에 어떤 금속 성분을 어떤 층에 넣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였다.
 ⑤ 불꽃 연출 효과의 원리에 대해서 ‘금속 성분에 여러 첨가물을 넣어 다양한 효과를 연출한다’고 하였다.

02 공통 견해의 파악 ④

인터뷰의 일부를 듣고 답하는 문제이다. 세 명의 사람들은 가고 싶은 대학을 화제로 하여 의견을 말하고 있다. 세 사람이 조금씩 다르게 표현은 하였으나 결국 공통적으로 바라는 대학은 진로에 대한 길잡이가 되어 주는 대학으로 귀결된다. 첫 번째 학생은 진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학, 두 번째 학생은 취업과 관련한 현장 실습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대학, 세 번째 학생은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취업에 성공한 선배들과의 만남을 주선해 주면 좋다고 하였고, ⑤ 마지막 학생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마지막 학생은 건물이나 시설은 관심이 없다고 하였다.
 ②, ③ 세 명 모두 언급하지 않는 내용이다.
 ⑤ 마지막 학생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다.

03 구체적 상황에서의 적용 ④

대화 방법에 대한 강연 내용을 듣고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강연자는 원만한 의사소통을 위한 방법으로 ‘예측되는 결과 활용하기’와 ‘나 전달법’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예측되는 결과 활용하기’는 비난 대신 논리적으로 말을 함으로써 상대방의 거부감을 줄일 수 있고, ‘나 전달법’은 상대방에 대해 비난하기보다 내가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는지를 설명함으로써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갖춘 것은 ④이다. 논리적으로 말하고 있으며,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한 나의 영향과 나의 감정을 적절하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상대방에 대한 비난에 해당하는 것으로 강연자가 설명한 두 가지 말하기 방법과 배치된다.
 ② 자신이 받을 영향과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전달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③ 자신이 받은 영향에 대해 ‘느낌’이라는 단어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⑤ 상대방의 잘못으로 내가 받는 영향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반응이다.

04 정보의 사실적 확인 ①

수업의 일부 내용으로 기부 문화의 정착 방안을 화제로 토의를 하고 있다. 기부 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원인에 대해 여학생은 사회지도층이 적극적으로 기부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남학생은 대중들의 인식의 문제를 들고 있다. 그리고 기부 문화 정착 방안으로 여학생은 기부에 대한 세제 혜택을 많이 주어야 한다고 하였고, 남학생은 기부금 모금 기관의 투명성 확보와 정기적인 기부를 제시하였다. 이 중에서 이 문제는 여학생의 의견을 묻고 있으므로 정답은 ①이다.

- 오답 피하기** >> ⑤ 남학생이 제시한 기부 문화 정착의 방안에 해당한다.

05 말하기 방식의 파악 ⑤

남학생은 기부 문화 정착이 제대로 되지 않은 원인과 기부 문화 정착 방안에 대해 시종 일관 여론조사, 조사 결과 등을 인용해 가며 자신의 주장을 펴고 있다. 따라서 남학생의 말하기 방식은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는 것이 된다.

- 오답 피하기** >> ①, ②, ③, ④ 남학생의 말하기 방식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06~10] (쓰기)

6 연상 내용의 적절성 평가 ②

(가)~(다)의 내용에 착안 하여 각 주제에 따라 쓸 내용을 적절하게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가)는 경쟁이 심해서 이익을 내기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새로운 발상과 기술로 시장을 개척했을 때 경쟁을 줄이면서 큰 이익을 낼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나)의 내용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학습법으로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는 방식의 공부 내용은 내용 차원의 연관이 없다. 오히려 (나)의 내용을 토대로 효과적인 학습법으로 '단순 암기 공부 방식보다 창의적인 사고(새로운 발상)를 지닌 공부방식이 효과적이다'는 내용을 연상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 ④ (나)에서 두 아이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아이들에게 피자를 자르는 권한과 자른 피자를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한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를 토대로 이해관계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특정인이 권한을 독점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배분하도록 한 사례와 연결 지어 생각할 수 있다.

7 자료의 활용 및 개요의 수정 ④

〈자료1〉, 〈자료2〉, 〈자료3〉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일상적인 고민 해결에 필요한 도움을 부모로부터 얻는 데 한계를 느끼는 있는 상황에서 친구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그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자료1〉, 〈자료2〉, 〈자료3〉에서 드러난 청소년 상담의 실태를 통해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은 청소년들의 일상적인 고민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담이 필요함을 제안할 수 있다. 하지만 〈자료1〉, 〈자료2〉, 〈자료3〉을 근거로 '청소년의 일상적 고민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부모와 친구의 태도 변화'를 제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러한 제안은 〈자료2〉와 〈자료3〉에서 제기된 문제 상황을 다시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8 조건에 따른 표현의 적절성 평가 ①

표지에 들어갈 문구는 먼저 '비유를 써서 대조적으로 표현할 것'이라는 표현상의 조건과 '상담을 바라는 청소년의 마음이 드러나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상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청소년들의 마음은 일상적인 고민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담을 원한다는 것이다. ①에서는 청소년들의 고민이 '소나기'로 비유되는 '가뭄, 폭력, 약물 중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랑비'에 비유되는 '일상적인 고민' 속에서 힘들어 하고 있음이 드러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상담을 바라는 청소년들의 마음이 관심의 우산을 통해 표현되어 있다.

9 글쓰기 계획의 보완 및 수정 ⑤

보고서의 목적은 우리 지역 문화재를 조사하여 그 가치를 학우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그리고 끝부분의 글쓰기 계획은 '학우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었다. 하지만 '훼손 문화재 복원 사업 추진 결의'는 학우들이 실천하기에는 역부족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구체화 내용이다.

10 고쳐 쓰기의 적절성 평가 ③

셋째 문단은 '고전을 왜 읽는가?'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문단으로 다른 문단과의 연결이 자연스럽게 않다. 글의 흐름으로 볼 때 첫째 문단으로 옮기는 것이 적절하다.

[11~12] (어휘 · 어법)

11 어휘의 이해와 적용 ③

각각의 단계를 따라가며 '다지다, 빵다, 썰다, 찢다'란 단어의 의미를 구분하는 것이 풀이의 요령이다. 먼저 도구를 사용하는가 여부에 따라 '찢다'를 걸러낼 수 있다. '찢다'는 칼로 하는 행위라기

보다는 손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칼을 사용하지 않고 절긋공이를 이용하는 것은 ‘뿔다’에 해당한다. 칼을 사용하되, 재료를 잘게 만드는 행위는 ‘다지다’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썰다’에 해당한다.

12 표준 발음의 이해와 적용 ⑤

㉠, ㉡를 보면, 얹-도록[ㄹ]과 얹-게[ㄹ]의 어간 ‘얹-’의 ‘ㄹ’ 발음은 ‘ㄷ’으로 시작하는 어미(‘-도록’)가 올 때는 [ㄹ]로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게’)가 올 때 모두 [ㄹ]로 서로 같다. 마찬가지로 넓-지[ㄹ]과 넓-게[ㄹ]의 어간 ‘얹-’의 ‘ㄹ’ 발음은 ‘ㅅ’으로 시작하는 어미(‘-지’)가 올 때는 [ㄹ]로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고’)가 올 때 [ㄹ]로 서로 같다. 한편 뵈-도록[ㄹ]과 뵈-게[ㄹ]의 어간 ‘뵈-’의 ‘ㄹ’ 발음은 ‘ㄷ’으로 시작하는 어미(‘-도록’)가 올 때는 [ㄹ]로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게’)가 올 때 [ㅂ]으로 서로 같다. 따라서 ㉠, ㉡를 통해, 동일 용언 어간의 ‘ㄹ’ 발음이 ‘ㄷ’이나 ‘ㅅ’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와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서로 다르다고 판단한 ⑤는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피하기** >> ① 용언 어간의 ‘ㄹ’ 발음은 ‘ㄷ’이나 ‘ㅅ’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뵈-도록[ㄹ]/넓-지[ㄹ]/얹-지[ㄹ])는 [ㄹ]으로,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뵈-게[ㄹ]/넓-고[ㄹ]/얹-거나[ㄹ])는 [ㄹ]로 서로 다르다.
 ② ‘ㄹ’ 발음은 ‘ㄷ’이나 ‘ㅅ’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뵈-도록[ㄹ])는 [ㄹ]으로 ‘ㄱ’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올 때(㉡ 닭-같이[ㄹ])는 [ㄱ]으로 서로 같다.
 ③ ‘ㄹ’ 발음은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뵈-게[ㄹ])는 [ㄹ]으로, ‘ㄱ’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올 때(㉡ 닭-같이[ㄹ])는 [ㄱ]으로 서로 다르다.
 ④ 용언 어간의 ‘ㄹ’ 발음은 ‘얹’, ‘넓’의 경우(㉠, ㉡ 얹-도록[ㄹ], 넓-지[ㄹ])에는 [ㄹ]로 ‘뵈’의 경우(㉠, ㉡ 뵈-도록[ㅂ])에는 [ㅂ]으로 발음되어 서로 다를 수 있다.

[13~18] (시가 복합) (가) 김소월, ‘길’ (나) 백석, ‘적막강산’ (다) 이신의, ‘단가육장’

[작품 해설]

(가) 김소월, ‘길’

해제 : 이 시는 목적지를 상실한 나그네의 비애를 소월 특유의 전통적 리듬과 소박하고 일상적 언어, 자문자답 형식의 대화체를 빌어 표현한 시다. 정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의 서글픈 정한은 현실의 삶에서 낙오된 소월 자신의 근원적 애수를 표현한 것인 수도 있고,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결부시킨다면 일제의 식민지 수탈 정책에 의해 삶의 터전을 상실하고 유랑의 삶을 살아야 했던 우리 민족의 비애를 대변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주제 : 아내를 잃은 슬픔과 절망감

(나) 백석, ‘적막강산’

해제 : 산에서 들리는 빠꾸기나 핑 같은 동물의 울음소리와 벌에서 들리는 물닭이나 갈새의 소리 속에서 더욱 적막감을 느낀다는 화자의 체험을 통해 인생의 고독감을 노래하고 있다. 작가가 살았던 일제라는 상황과 연결하여 시대 상황에서 오는 갑갑한 심정을 노래하는 시로 보기도 한다.

주제 : 산과 벌에서의 쓸쓸함 / 삶의 고독감

(다) 이신의, ‘단가육장’

해제 : 이 작품은 작가가 유배지에서의 생활과 심정을 담아낸 <단가(短歌)> 6수의 연시조이다. 그는 광해군 9년(1617년) 인목대비의 폐위를 반대하는 상소문을 올렸다가 함경도의 화령으로 유배되어 6년에 걸쳐 유배 생활을 하는데, 그때의 심정이 이 작품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작품도 비슷한 주제의 다른 고전시가와 마찬가지로 자연물에 관습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화자의 처지와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 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효제충신(孝弟忠信)

13 공통점 찾기 ①

(가)에서는 길이 없는 공중에서도 잘 날아가는 기러기와 길이 있어도 갈 길 몰라 하는 화자 사이의 대비를 통해 고향(방향, 목표) 상실이라는 화자의 현재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나)에서는 산에 있는 자연물, 벌에 있는 자연물과의 대비를 통해 외로운 화자의 현재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다)에서는 ‘세우(가랑비)’ 내리는 뜰에 ‘제비’를 바라보면서 고뇌하는 화자의 현재 상황을 드러내거나 ‘제비’와 동병상련을 느끼면서 현재의 근심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달’을 벗으로 설정하여 화자의 현재 정서를 제시하기도 한다.

- 오답 피하기** >> ② ‘시각의 대립’이란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관점상 대립인지, 시각(감각)의 대비를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다. 시가에서 관점에 있어서의 대립이 나타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무화과’를 바라보는 화자와 친구의 관점의 대립을 축으로 시상이 전개되는 김지하의 <무화과>나 삶의 방식에 있어서 허무주의적 태도를 보이는 친구와 삶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화자의 태도 상의 대립이 나타나는 김영랑의 <독을 차고> 등이 그 예이다. 시각을 감각으로 보더라도 (가), (나), (다)에서는 시각의 대립이 나타나 있지 않다.
- ③ 역동적 이미지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힘찬 움직임을 느끼게 하는 어휘가 있어야 하고, 상황적으로 화자나 시적 인물이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시적 상황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가)의 화자는 고향(방향, 목표) 상실 상황에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역동적 이미지가 나타나기는 쉽지 않다. (나) 역시 자연(산과 벌)에서의 적막감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역동적 이미지가 드러나지는 않는다. (다)에서 화자는 귀양살이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역동적 이미지가 드러나기는 힘들다.
- ④ (가), (나)에는 과거 회상이 들어 있지 않다. (다)의 2장은 화자가 현재 유배 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면 과거 사건을 떠올리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우의(비유)의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화자의 체험 내용을 회상하는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반성한다고 볼 수 없다.
- ⑤ (가), (나), (다) 모두 밝고 어둠의 대비가 나타나 있지 않다.

14 정서와 상황의 연관성 이해하기 ④

(가)에서 ‘기러기’는 고향(방향, 목표) 상실이라는 상황을 부각시키는 소재이다. 그 방식은 화자와 기러기가 처한 상황의 대비(화자: 길 있어도 못 감 ↔ 기러기: 길 없어도 잘 감)에서 오는 것이지 화자가 기러기와 떨어져 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것은 아니다.

- 오답 피하기** >> ①, ② 화자가 ‘오늘’도 ‘길’을 가야하는 이유는 오라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자신을 반겨주는 곳이 없다는 사실은 화자의 외로움을 심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
- ③ ‘내 집’은 바로 고향을 의미한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은 타지에서 화자의 외로움을 심화시키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⑤ ‘열십자 복판’은 화자가 고향을 잃고 방향(목표)을 잃었음을 함축적으로 보여 주는 시어이다. 고향을 상실한 화자의 상황은 외로움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15 내재적 감상 ④

4연에서 화자가 ‘산’으로 가든 ‘벌’로 가든 쓸쓸함과 고독감을 느끼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따라서 두 공간은 상반된 의미를 지닌 공간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피하기** >> ① 명확하게 지적할 수는 없지만 ‘빠꾸기’가 우는 시기, 배추(벌배채) 속이 들어차는 시기는 여름에 해당한다. 특정 계절을 지정할 수 없어도 ‘때’라는 어휘에서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음을 판단할 수 있다.
- ③ 2연에서는 산의 소리가 ‘빠꾸기 소리’와 ‘덜거기 소리’로 구체화되고 있고, 3연에서는 벌의 소리가 ‘물닭 소리’와 ‘갈새 소리’로 구체화되고 있다.
- ⑤ ‘산’과 ‘벌’에서 화자의 체험은 외로움(적막감)이라고 할 수 있다. ‘적막강산’이란 시어를 통해 공간에서 체험한 것을 집약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다.

16 비교 감상하기 ⑤

(가)에서 화자는 의문문을 사용하여 ‘기러기’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고, 자신의 현재 처지를 확인하고 있다. 그렇지만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나)에서 화자는 ‘-노라’와 같은 감탄형 어미를 사용하면서 ‘하노라’란 서술어를 반복하고 있다. 서술어 반복은 서술어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며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렇지만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오답 피하기** >> ① (가)의 제목 ‘길’은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기 위한 제재이며, (나)의 제목 ‘적막강산’은 자연 속에서의 외로움이란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에서는 ‘길’이란 시어와 ‘여보소 공중에 / 저 기러기’라는 시구가 반복되고 있다. (나)에서는 ‘산’, ‘벌’, ‘오면’, ‘소리’, ‘들썩’과 같은 시어와 ‘나 홀로’라는 시구가 반복되고 있다.
- ③ (가)의 ‘정주 객산’은 화자의 고향이기 때문에 화자가 경험한 구체적 공간에 해당한다. (나)의 ‘정주 동림’은 화자가 ‘산 소리’, ‘벌 소리’를 들으며 적막감을 경험한 구체적 공간이다. (참고: 정주는 소월과 백석의 고향이다.)
- ④ ‘길’은 공간에 해당하며, ‘갈리다’는 쪼개고 나누다는 의미인 ‘가르다’의 피동형이다. 따라서 ‘갈린 길’은 공간(길)이 쪼개진 것이기 때문에 공간적 성격을 띤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룻길’은 걸어서 하루 정도 걸리는(시간) 길(공간)이기 때문에 시공간적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

17 외적 준거를 활용한 시구 이해 ②

정계에 복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는 구절을 찾기 위해서는 ‘기대’나 ‘소망’을 드러내고 있는 서술어에 주목해야 한다. ㉠은 ‘다시’라는 어휘에서 ‘복귀’를 ‘볼까 하노라’에서 기대나 소망을 확인할 수 있다. (※ ‘우로’란 시어가 축자적으로는 ‘비와 이슬’이란 의미이지만 도끼에 의해 잘린 소나무가 다시 소생하기 위한 조건으로 ‘성은(聖恩) ; 임금의 은혜’란 상징성을 지닌다.)

18 화자와 대상과의 관계 이해 및 적용하기 ③

(나)의 ㉡에서 화자는 ‘벌’이라는 자연 공간 속에 있다. 그 속에는 ‘물닭’이나 ‘갈새’ 소리가 있다. 그렇지만 외로움(적막감)을 느끼고 있다. 이와 같은 관계를 잘 보여 주는 것은 3장이다. 화자는 비(세우)가 오고 제비가 날아다니는 공간 속에 있다. 이 속에서 ‘한숨’(시름과 걱정)을 이기지 못하

고 있다. 이처럼 (나)의 ㉠나, (다)의 3장에는 자연 환경 속에서 화자가 내적 고뇌를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 오답 피하기** >> ① 대상이라고 할 만한 소재가 없다. 화자의 삶에 대한 태도만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② 대상은 ‘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많던 술(가지)이 사라진 상황에서 안타까움과 다시 보고자 하는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④ 대상은 ‘명월’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대상을 반가운 벗으로 여기고 있다.
 ⑤ 대상을 ‘호접’으로 볼 수 있는데, 화자는 매화 향기를 ‘호접’에게 보이고 싶어 한다. 여기서 ‘호접’은 임금, 매화 향기는 충절로 해석하는 것이 보통이다.

[19~20] (과학)

19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②

본문의 내용에 따르면,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간다고 하였다. 이 정보를 속도(v)가 광속(c)에 근접하면 시간 팽창률이 급격히 커진다는 정보와 결합하게 되면, 결국 시간 팽창이란 매우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가운데, 시간이 매우 천천히 흐르는 것을 의미함을 알 수가 있다. 이에 해당하는 적절한 예는 ②에 해당한다. ②에서는 초고속 우주선이라 하였으므로 빠른 속도로 이동한다는 조건을 만족하며, 천천히 늙는 것은 결국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움직이는 사람의 경우 안 움직이는 사람보다 시간이 천천히 가야하므로 시계 바늘이 천천히 움직여야 한다.
 ③, ④ 사고로 갇혀 있는 사람이 시간이 느리게 간다고 느끼는 것과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끼는 것은 심리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지 속도에 따른 시간 팽창과는 관련이 없다.
 ⑤ 수백만 년 전에 일어난 별의 폭발 장면이 지금 지구에서 관측되는 것은 단지 빛에도 속도가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지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시간의 팽창과는 관련이 없다.

20 비판적 추론 ①

둘째 문단 첫 번째 문장을 참고하면, 아인슈타인은 뉴턴의 시간 절대성 시간 개념을 근본적으로 거부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절대성을 문제 삼고 있는 ①이 적절하다.

- 오답 피하기** >> ②, ③, ④, ⑤는 모두 아인슈타인이 언급하지 않은 내용으로 뉴턴을 비판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못하다.

[21~24] (고전 소설) 작자 미상, ‘김원전’

【작품 해설】

〈김원전〉은 영웅의 일대기를 충실히 그리면서 ‘김원’이라는 인물의 영웅성을 부각시키는 영웅 소설이기도 하다. 또한 이 작품은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와 매우 비슷한 구조를 지니고 있어 우리나라의 전래 설화로부터 파생된 작품이 아닌가 추론되기도 한다. 과당한 모습으로 태어난 김원(金園)은 황제의 딸을 앓아간 괴물을 죽이고 공주를 구해낸다. 또한 용왕의 딸도 구해 주어 용궁으로 가서 용녀와 혼인하게 된다. 연적을 선물받고 돌아오다가 갖은 파란곡절을 겪은 끝에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는데 후에 김원은 용녀와 같이 신선이 된다는 줄거리이다. 〈김원전〉의 원형은 국조 신화와 주몽 사상의 광명 사

상이 수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용녀가 단군을 낳기 전에 빛 없는 동굴 속에 있었다는 것은 모태화귀로 돌아온 것에 비유된다. <김원전>은 국조신화의 동굴 모티프와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의 변신계형 모티프가 수용된 것이다. 김원은 타고난 운명이 불행했으나 불행을 행복으로 역전시키는 노력과 선행을 함으로써 구원자가 나타나 도움을 받게 된 것이다. 따라서 <김원전>의 원형은 국조 신화와 주몽 신화를 수용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줄거리】

천상에서 남두성이란 별이 옥제에게 죄를 지어, 그 별로 지상으로 적강된다. 천상으로 부터 적강된 남두성은 김규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는데, 그 생김새가 수박과 같은 형상이었기에 김규 내외는 근심 걱정에 쌓이게 된다. 그러나 원은 10년 동안 고난을 겪은 후 보를 씌운 것이 벗겨지면서, 장부로 변신한다. 원은 천서 세 권을 읽고 지혜와 총명이 열리어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비상하였고, 또한 풍운조화의 신통술을 부리기까지 하였으므로 신인의 경지에 이르렀었다.

원이 재주를 시험하기 위해 창검공시를 가지고 천마산에서 무술 연습을 익히고 있을 때 머리가 아홉이고 몸집이 집채 만한 괴물이 미인 셋을 등에 업고 가는 것을 보고 쫓아가 싸웠지만 세 여인을 구하지 못하고 상처를 입기만 하였다. 괴물은 원을 잡아 죽이겠다는 말을 하고 암굴로 들어가 버리자 원도 그 입구를 봐 두고 돌아왔다.

조정에서는 대낮에 황제의 세 공주가 괴물에게 납치된 사실을 알고서는 이들을 구할 사람을 물색하던 중에 원이 출정하게 되었다. 원은 부원수 강문추를 데리고 괴물이 사라진 천마산 동굴로 들어가 세 공주를 구하고 지상으로 올려보내고 원이 굴 밖으로 나갈 차례였으나 부원수가 원의 공을 시기하여 칙덩굴을 내려 보내지 않고, 그 굴을 막아 버려 동굴 속에 갇혀 버리게 된다.

원은 탈출하기 위해 굴 속을 헤매며 지나다가 괴물에게 잡힌 용자를 구해 주게 되어 용왕의 환대를 받고 용녀와 결혼하여 부마가 되고 다시 인간 세계로 나오는 행운을 맞게 되었다. 그러나 원은 귀향 도중 점주를 만나 용왕이 준 연적을 빼앗기고 피살된다. 용녀는 용궁으로 도망가서 용왕에게 고하고, 왕은 즉시 점주를 찾아 엄행한 후, 시체를 찾아 금강초를 엮고 병수는 입에 넣어 원을 소생시킨다. 죽었던 김원은 다시 회생하고 용녀를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온 김원은 천자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말하자 천자는 김원을 배신한 부하를 베어 죽이고 김원을 부마로 삼는다. 황제의 부마가 된 후, 형주후로 봉해져 행복한 생활을 누리다가 신선이 되어 등선하게 된다.

21 구체적 사실 확인 ④

변신 이후 김원의 대화 내용 중 “소자는 십 년을 부모 걱정시키던 불초자 원이로소이다.”에서 ④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②, ③, ⑤의 내용은 지문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22 외적 증거를 통한 판단 ④

(중략) 이후에 이어지는 비복의 대사 중에 “~ 그 연고를 알지 못하겠나이다.”라는 말로 미루어 볼 때, 비복은 ㉠의 결과임을 인식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므로 변신의 결과를 보고했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변신의 결과임을 인식하는 것은 허물과 책 세 권을 확인한 승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만약 변신의 결과를 인지하지는 못했지만 결과 보고 자체는 비복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더라도, 이것이 부자 관계 확인의 정당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오답 피하기** >> ① ‘이것’이라고 지칭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아직 ‘홍물’로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김원은 천상계에서 죄를 지어 ‘적강’하게 되고, 십 년이 흘러 죄 값을 다 치러서 변신을 하게 된다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홍물로만 인정될 때는 ①에서처럼 ‘이것’이라고만 칭했다. 그러나 ‘밥’먹기를 통해 이름을 얻게 된 것은 점차 홍물에서 벗어나 골육의 성격이 강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불초자’라는 말은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쓰는 말이므로 부자 관계를 확인받으려는 김원의 바람이 구체화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3 외적 준거를 통한 판단 ④

김원의 변신에 관여하는 것은 선관이지 부모가 아니므로 ④는 적절하지 못하다.

- 오답 피하기** >> ① 김원이 지상에 내려온 이유는 죄를 지어 벌을 받아서 내려온 것이다.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여 내려온 것이 아니므로 수동적인 행위로 보아야 한다.
 ② 지상계에서 벌어지는 일이 모두 옥황상제의 계획인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므로, 천상계를 더 근원적인 공간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③ 김원의 비정상적인 출생과 성장, 그리고 변신은 모두 천상계의 질서인데, 부모가 이를 의심하는 것은 지상계의 질서와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상계의 질서가 존재하고 있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⑤ ③에서처럼 천상계의 질서를 의심하던 부모는, 천상계의 존재인 선관이 남긴 허물과 책 세 권을 보고 나서, 김원을 아들로 인정하고 천상계의 질서를 받아들이게 된다. 따라서 허물과 책이라는 증거물을 통해 천상계는 지상계와 소통하고, 지상계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천상계의 질서가 지상계에 구현된 것이다.

24 상황에 적합한 한자성어 이해 ①

㉠에서는 ‘십 년을 고생하여~’라는 부분이 언급되어 있고, 그 고생을 겪고 난 뒤 ‘~ 못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고진감래(苦盡甘來)’가 적절하다.

- 오답 피하기** >> ② 괄목상대(刮目相對) : 눈을 비비고 상대방을 본다는 뜻으로, 남의 학식이나 재주가 놀랄 만큼 부쩍 늘 것을 일컬음
 ③ 권불십년(權不十年) : 권세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말
 ④ 동상이몽(同床異夢) : 기거(起居)를 함께 하면서 다른 꿈을 꾸는 뜻으로,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각각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음을 일컫는 말
 ⑤ 오리무중(五里霧中) : 오리에 걸친 짙은 안개 속에 있어 방향을 알 수 없음과 같이, 무슨 일에 대해 알 길이 없음의 비유

[25~27] (언어)

25 내용의 사실적 이해 ②

둘째 문단에서 음독 중심의 독서 방법에서는 낭독-듣기식 읽기가 보편적이었다고 서술하고 있고(㉠), 셋째 문단에서 묵독이 꼼꼼히 읽는 분석적 읽기를 가능하게 하였다고 서술하고 있으며(㉡), 첫째 문단에서 검색형 독서에서 정보 처리적 읽기가 중요하게 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26 내용의 추론적 이해 ②

셋째 문단에서 12세기 무렵에 등장한 책자형 책은 주석을 참조하거나 앞부분을 다시 읽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목독을 도왔다고 서술하고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 오답 피하기** >> ① 넷째 문단에서 분산형 독서가 필독서인 고전의 권위에 대항하여 자유로운 선택적 읽기를 가능하게 하였다는 데서 알 수 있다.
- ③ 셋째 문단에서 밝힌 반체제, 에로티시즘, 신앙심 등의 내용과 관련된 책의 등장을 이전 시대의 읽기 방법(공개적 낭독)과 다른 새로운 읽기 방법(목독)과 관련하여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다 볼 수 있다.
- ④ 둘째 문단에서 서술한 이어 쓰는 연속 기법의 단점(내용 이해의 어려움)과 대비해 볼 때, 셋째 문단에서 서술한 띄어쓰기와 문장 부호의 역할(날말의 간격, 문장의 경계 등을 표시)은 가독성을 높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⑤ 넷째 문단에서 인쇄술의 보급으로 독서 기관들이 급격히 증가한 사실이나, 여성들이 대거 독자로 유입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27 독자의 비판적 반응 ①

[A]에서 서술하고 있는 검색형 독서 방식의 특징(텍스트의 일부분을 골라 읽기, 잘라 내기 혹은 다른 텍스트에 추가하기 등)에서는 목독 시대로 회귀하는 현상이라 판단하게 된 근거 자료들(이모티콘, 축약 표기, 동영상 텍스트의 출현)을 확인할 수 없다.

- 오답 피하기** >> ②, ③ 텍스트의 일부를 잘라 내어 다른 텍스트에 추가하는 행위가 반복되면 원전이 무엇이었는지 알아보기 힘들 수 있으며, 그러한 행위 자체가 쓰기가 될 수 있으므로 읽기와 쓰기의 경계도 모호해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함부로 남의 글을 옮기는 문제점을 유발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 볼 수 있다.
- ④ 기존의 종이 책을 전자 문서화하면 골라 읽기가 가능해지고, 이로써 지식의 검색과 활용 범위가 확장될 것임을 생각할 수 있다.
- ⑤ 정보의 검색이 용이해지면 독자들은 수많은 정보들을 접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수많은 정보 가운데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제대로 찾아 읽을 것인가가 문제 될 수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

[28~31] (사회)

28 내용의 사실적 이해 ②

넷째 문단에서 필자는 환율과 경상 수지 간의 복잡한 관계 때문에 환율 정책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경상 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고환율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필연성) 내용은 이 글에서 다루고 있지 않다.

- 오답 피하기** >> ① 첫째 문단에서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이 상승한다고 언급하였다.
- ③ 둘째 문단에서 국내 기업이 수출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을 낮추더라도 외국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고 소비를 늘리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고 언급하였다.
- ④ 셋째 문단에서 상품의 가격 조정이 일어나도 국내외의 상품 수요가 가격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수요 구조에 따라 경상 수지는 개선되지 못하기도 한다고 언급하였다.
- ⑤ 첫째 문단에서 일반적으로 환율의 상승은 경상 수지를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언급하였다.

29 시각 자료를 활용한 내용의 추론적 이해 ②

ㄱ. 둘째 문단을 통해 볼 때, 환율이 상승하더라도 환율이 오른 비율만큼 수입 상품의 가격이 오

르지는 않는다. 이 때문에 수입액은 곧바로 줄어들지 않으며, 경상 수지가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악화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환율 상승 비율과 수입 상품 가격의 상승 비율이 가까워진다면) 소비가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고, 경상 수지가 악화되는 현상(적자) 역시 비교적 완화될 것임(골이 알아짐)을 알 수 있다.

르. 둘째 문단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상품의 가격 및 물량의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경상 수지가 개선된다고 하였다. 이는 그래프에서 경상 수지가 흑자로 바뀌는 ㉔ 구간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L. 셋째 문단에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수출 기업이 환율 상승에 의존하여 품질 개선이나 원가 절감 등의 노력을 계속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잃어 경상 수지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수출 기업의 품질 및 원가 경쟁력이 강화된다면) 경상 수지가 악화(적자)되는 기간 역시 더욱 단기간에 그칠 것임(㉔ 구간이 좁아짐)을 알 수 있다.

㉔. ㉔은 ‘경상 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바뀌는 구간이다. 그래프는 처음부터 환율이 상승한 것을 전제로 그 이후의 경상 수지의 상황에 대해서 보여 주고 있다.

30 근거·이유 추리 ③

환율 상승으로 상품의 가격 조정(수출 상품 가격 인하 및 수입 상품 가격 상승)이 일어나더라도 국내외의 상품 수요가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면(외국에서의 실제 상품 구매가 증가하지 않고 국내에서의 실제 상품 구매가 감소하지 않으므로 수출액이 늘지 않고 수입액이 줄지 않음), 수출량이 증가하고 수입량이 감소하더라도 경상 수지는 그다지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다.

31 어휘(속담) ①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환율 상승)만을 믿고 아무런 노력(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므로, 일종의 불로소득을 바란다는 뜻의 ‘감나무 밑에 누워 홍시 떨어지기를 바란다.’가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 ② 누구나 성공하려면 먼저 의지할 데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뜻이다.

[32~34] (희곡) 최인훈,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

[작품 해설]

주제 : 온달과 공주의 비극적인 사랑

해제 : 승천이 좌절된 구령이의 전설과 <삼국사기>에 실린 온달 설화를 새로운 시각으로 다룬 창작 희곡으로 공주의 주체적 의지와 온달의 헌신적 사랑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작품이다. 원작 설화와는 달리 공주가 왕실 내부의 권력 투쟁에서 패배해 출가하던 중 우연히 온달을 만나 결혼하고 그를 정치적 동반자로 만드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온달은 원작처럼 신라군의 화살에 맞아 죽는 것이 아니라 공주의 정적(고구려의 왕자)의 시주를 받은 부하들의 음모로 암살된다. 온달의 죽음 후 공주도 온달의 옛집에서 온달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다가 죽음을 당하는 비극적 결말을 맞는다.

32 인물의 심리와 태도 ④

(중략) 아래 3행을 보면, 장교가 ‘왕명’을 받들고 왔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④ ‘장교가 ‘부장’의 명을 받고 왔다고 말한다.’는 잘못된 설명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공주의 ‘평양성에 가서 반역자들을 모조리 도륙하도록 합시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다.
②, ③ 장수1,2,3과 부장의 말을 통해 장수들은 ‘부장의 머리 상처의 진실’이 밝혀질 것을 염려하고 있으며, 부장은 공주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중략> 이하의 장면에서 장교의 명령에 따라 병사들이 공주를 살해하였으므로, 병사들은 장교의 명령에 복종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33 표현상의 특징 ①

㉠(이제 누구를 위해 여기 머물겠다고 이렇게 때를 써십니까?)은 ‘죽은 온달이 전쟁터에 계속 머물기 위해 이동을 거부하여 관이 움직이지 않는 장면’에서의 공주의 말이다. 이것은 ‘설화에서 볼 수 있는 비현실적인 요소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오답 피하기** >> ㉠, ㉡, ㉢, ㉣에 나타난 인물의 대화와 행동은 현실에서 충분히 가능한 것들이므로, 이것은 ‘설화에서 볼 수 있는 비현실적인 요소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4 다른 매체에 적용하기 ②

<보기>에서 그림의 숫자는 등장인물이 서는 무대 지역의 ‘중요도’ 순서를 나타낸다고 하였으므로, (나)에서는 1번 지역에 있던 장교를 (가)에서는 2번 지역으로 옮겨 배치한다면 장교의 역할이나 중요도가 ‘약화’되므로, ② ‘(가)에서는 장교를 2번 지역에 배치하여 (나)에 비해 장교가 사건 진행의 주도권을 쥐고 있음을 더 잘 보여 줄 수 있겠군.’은 잘못된 설명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인물들을 가깝게 배치한다면, 멀 때보다 친밀도가 더 부각된다고 볼 수 있다.
③ 인물들을 입장에 따라 둘로 나누어 좌우로 배치한다면, 두 집단의 갈등 관계가 더 강조된다고 볼 수 있다.
④ 온모를 가리지 않게 배치한다면 가려질 때보다 온모의 역할이 더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⑤ 병사들이 뒤에 있다가 앞으로 배치되면, 관객의 입장에서는 위압감을 더 잘 느끼게 될 것이다.

[35~38] (현대 소설) 김원일, ‘잠시 눕는 풀’

[작품 해설]

주제 : 산업화 시대 도시 빈민층의 어두운 자화상

줄거리 : 시우네 가족은 백암리에서 이런 저런 날품을 팔아 근근히 생계를 꾸려 나가던 중에 형 중우의 제안으로 서울로 올라오게 된다. 도시 빈민으로 힘겹게 살아가던 2년 전 어느 날 시우는 우연히 김 여사를 만나 김 여사 택의 청소부로 일하면서 운전을 배우게 되다. 시우는 김 여사의 개인 운전사가 된다. 어느 날 김 여사는 음주운전으로 교통 사고를 내고 시우 또한 이로 인해 크게 다친다. 김 여사 측은 돈으로 시우 가족을 매수해 사건의 책임을 시우에게 전가하고자 한다. 가족들은 잠시 갈등하지만 결국 시우는 돈 때문에 교통 사고의 가해자로 거짓 자백을 하고 수감된다.

해제 : 1970년대는 우리 사회가 인간적인 가치와 윤리는 뒤로한 채 산업 사회를 향해 무한 질주하던 시기이다. 이러한 시대상은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김 여사의 얼굴과 맞닿아 있다. 주인공인 시우와 시우네 가족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지만 그 길은 멀고 험하기만 하다. 내일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금전적인 보상을 대가로 억울한 누명을 자처한 시우의 선택은 눈물겹게 감동적이다. 돈에 팔려가는 시우를 ‘심청이’에 빗대어 표현하고 감옥에서 웃고 있는 시우를 ‘포갯집에 팔려 나온 시골 처녀’에 비유함으로써 작가는 산업화 시대 도시 빈민층의 어두운 일면을 그리고자 하였다.

35 서술상의 특징 ⑤

이 글에서는 중략 이하 부분에서 ‘시우’가 처한 상황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⑤ ‘서술의 초점을 특정 인물이 처한 상황에 맞추고 있다’는 적절한 설명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의식의 흐름’ 기법이란, 사건보다는 중심인물의 내면 의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이 글은 사건을 중심으로 인물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되고 있으므로 ‘의식의 흐름’ 기법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다.
- ② 이 글에서는 ‘사물’의 외양(겉모습)을 객관적으로 묘사한 부분이 없다.
- ③ 이 글에서는 ‘이선생과 부사장의 대화 장면’과 ‘시우와 종우의 면회 장면’, 그리고 ‘시우와 동료 죄수들과의 대화 장면’ 등이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잡은’ 장면 전환으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이것은 ‘상당한 시간의 경과 후에 진행된 장면들’이어서 긴박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도 아니다.
- ④ 이 글에서는 ‘시우’의 체험만 나타나 있고 삽화 형식(본래의 이야기 속에 다른 이야기를 끼워 넣는 형식)도 아니다.

36 인물의 성격 ⑤

종우 형의 말 중 ‘이건 정말이 면목이 없다만, 이 형이 양심을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등에서 종우는 시우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⑤ ‘종우는 시우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잘못된 설명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②, ③, ④는 본문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7 인물의 심리 ③

㉠(죄수들의 이마에 붙인 풋말)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설명한 것일 뿐, 시우의 심리가 반영된 것은 아니다.

- 오답 피하기** >> ㉠, ㉡, ㉢, ㉣은 시우의 심리가 반영되거나 시우의 심리와 관련이 있는 소재로 볼 수 있다.

38 외적 준거에 의한 감상 ⑤

‘면회소’는 종우가 시우를 만난 곳이고, ‘신흥주택지대’는 종우가 장사할 곳을 알아보러 다니는 장소일 뿐, 가진 자의 악의적 세계와 그에 짓눌린 사람들의 상황을 대립하여 보여 주는 장소는 아니다. 따라서 ⑤ ‘면회소와 신흥주택지대의 공간적 대립은 가진 자의 악의적 세계와 그에 짓눌린 사람들의 상황을 보여 주기 위한 구도라고 할 수 있겠군.’은 잘못된 설명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말 울음 소리’같은 웃음은 가족을 위해 희생을 선택한 데 대한 괴로움과 자부심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시우는 종우 형이 자신의 도움으로 운영할 ‘백암 상회’를 생각하며 위안을 얻고 있다.
 ③, ④는 본문 내용과 <보기>의 관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내용이다.

[39~43] (예술)

39 서술 방식 ③

제시문은 ‘논리’를 중시하는 입장(피타고라스)과 ‘감각적 지각’을 우선시하는 입장(음악주의)을 소개 하면서 마지막 문단에서 이를 종합하는 서술 방식을 구사하고 있다. 따라서 ③이 정당한 설명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가)에서 ‘기예’와 ‘학문’을 비교하고 있지만 비유법은 구사되지 않고 있다.
 ② (나)에 핵심적인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는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라)가 앞 문단의 내용과 대조되는 사실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그것은 다른 관점과 그에 대한 사실의 제시이지 앞에 소개된 내용의 모순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다.
 ⑤ (마)는 앞에 소개한 상반된 관점과 내용을 종합하며 서양 음악의 맥을 정리하여 마무리하는 문단이지 두 관점을 절충하지는 않았다.

40 추론 ③

보이티우스의 음악 분류법을 제시글과 연계하여 확장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문제이다. 보이티우스 분류법에 따르면, ⑦와 ④는 인간의 귀로 감지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였으므로 하프에서 실제로 나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조화로운 소리라고 판단하는 것(㉔)을 ④의 차원으로 이해하는 ③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피하기** >> ① ①과 ②는 공통적으로 ‘수’를 기준으로 음악을 조명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고 또 중세의 이론가인 보이티우스가 후대의 사람이라는 점에서 적절한 해석이다.
 ② 직접 연주하는 형태(㉔)는 물리적인 음향학의 원칙과 상통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설명이다. 이와 같은 이치로 ④의 해석도 타당하다. 5도에 기초한 피타고라스 음률은 구체적인 악기 연주를 통해 얻어진 것이므로 ㉔을 구현하면 ④가 된다는 ⑤의 판단도 적절하다.

41 관점, 태도 ③

제시글에 나타난 음악주의자의 태도는 논리보다는 경험을 중시하는 성향으로 정리되고 있다. 이에 기초해서 반대편에 있는 논리 중시의 경향을 가려내면 ③이 가장 가까운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오답 피하기** >> ①, ②, ④, ⑤는 각각 ‘논리적 분석’, ‘수리적 관계’, ‘대칭 관계’, ‘수열’이 경험보다는 ‘논리’를 중시하는 경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42 제시글을 바탕으로 한 <보기> 자료 이해 해석 ④

문제 풀이와 관련되는 내용은 (나)에 나오는데 (나)에 따르면 [도-솔]의 5도는 3:2, [솔-도]의 4도는 4:3의 비를 이룬다. 따라서 <보기>에 제시된 것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즉, [도-솔]은 12:8이므로 이는 3:2의 비례 관계로 5도에 해당한다. [파-도] 사이도 9:6이므로 3:2, 역시 5도에 해당한다. 한편, [도-파] 사이는 12:9가 4:3과 같으므로 4도이고, [솔-도]도 마찬가지로 원리로 4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기초로 적용해 볼 때 현 길이가 12:8인 두 현 사이는 3:2 비례 관계이므로 5도에 해당되어 4도 소리가 난다는 ④는 옳은 해석이 아니다.

- 오답 피하기** >> ① [도-솔]과 [파-도]의 음정은 각각 5도로 동일하다.
 ② 한 옥타브는 [도-솔]의 비례식으로 5도, [솔-도]의 비례식으로 4도를 합쳐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설명이다.

③ [도-파]가 4도, [솔-도]도 4도, 중간에 온음이 있으니 적절한 설명이다.

⑤ [도-솔]이 5도, [도-파]가 4도인데 그 차이를 ‘온음’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 역시 적절한 설명이다.

43 어휘 ②

① ‘내재한’, ② ‘배어 있는’에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 핵심적인 의미는 ‘어떤 것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이를 반영하여 문맥에 비추어 어색하지 않은 표현으로는 ② ‘들어 있는’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 ①은 한자말 ‘중복’에 대응되고, ③은 ‘편중’에 대응된다. ④ ‘안겨 있는’은 어떤 요소가 다른 대상의 부분으로 작용할 때 쓰이는 말로 이 경우와는 구별된다. ⑤ ‘엮혀 있는’은 어떤 대상이 다른 대상에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부수적인 관계로 의탁되어 있을 때 쓰는 말이다.

[44~47] (인문)

44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②

<보기> 갑의 행동은 도움이 필요한 두 명의 대상인 친구와 급한 환자 중에 급한 환자를 선택한 행동이다. 이 행동은 전통적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평가할 때 ‘선’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첫 문단에서 설명한 기초적 공리주의의 요소에 입각해서 쉽게 판단 내릴 수 있다. 문제에서는 그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므로 ②가 정답이다. 자신에게만 도움이 된다는 것을 행동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공리주의의 행위 원리와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답 피하기 >> 다른 선지는 모두 첫째 문단에서 준거를 찾을 수 있다. ①과 ④는 두 번째 요소, ③은 세 번째 요소, ⑤는 첫 번째 요소에 입각한 행동이다.

45 추론적 이해 ③

㉠의 내용을 정리하면 민우는 전통적 공리주의자이고 그는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였다. 그의 결정에 대해 ‘반공리주의자’는 공리주의가 지닌 가장 심각한 문제인 정의의 개념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예상할 것이다. 결국 한 개인의 무고함이라는 ‘정의’를 무시하고, 집단의 갈등을 줄이려는 ‘공리’의 직접적인 양을 중시하여 ‘B집단의 무고한 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할 것이다. 답은 ③이다.

46 외적 준거와 비교를 통한 이해 ⑤

<보기>의 의무론자의 견해를 정리하면,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결과’ 혹은 ‘공리’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절대적인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의무’ 때문이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오답 피하기 >> ①과 ④의 규칙 공리주의자는 ‘무조건’적이 아니라 장기적인 ‘결과’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른 ‘정의’에 주목한다.

②와 ③의 의무론자는 ‘결과’가 아니라 ‘절대적 의무’에 따른다.

47 어휘의 이해 ⑤

㉠의 ‘따르다’는 그 맥락상, ‘평가의 기준에 따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가장 가까운 뜻으로 쓰인 것은 ⑤의 ‘원칙에 따르다’라고 할 수 있다.

[48~50] (기술)

48 세부 정보의 확인 ①

제시문의 셋째 문단을 보면 ‘이산화질소와 같은 산화 가스는 산화물 반도체로부터 전자를 받으면서’, ‘일산화탄소와 같은 환원 가스는 산화물 반도체 물질에 전자를 주면서’라고 언급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적절한 것은 ①이다.

오답 피하기 >> ②는 첫째 문단, ③은 넷째 문단, ④는 둘째 문단, ⑤는 셋째 문단에서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9 사례에의 적용 ⑤

①의 안정성은 ‘반복 측정하여도 동일 조건 하에서는 출력이 거의 일정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예는 ⑤이다.

50 구체적 자료를 통한 이해와 적용 ③

〈보기〉의 그래프에서 A와 B를 이용한 두 센서는 저항 값이 정상 상태의 저항값(R_S)에 다다른 시간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③이다.

오답 피하기 >> ①은 그래프가 공기 중에 특정 가스가 산화물 반도체 물질에 흡착되는 양이 늘어나다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림이므로 이 가스는 셋째 문단의 내용을 통해 ‘산화 가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②와 ④는 그림에서 A를 이용한 센서와 B를 이용한 센서의 공기 중의 저항값(R_{air})과 정상 상태의 저항값(R_S)이 같음(④)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넷째 문단의 내용을 통해 응답 감도($(R_S - R_{air}) / R_{air}$)가 같다(②)는 것을 알 수 있다.

⑤는 그림에서 t_1 직후부터 정상 상태(R_S)에 도달하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A의 저항값의 변화 그래프가 B보다 위에 있으므로 그 크기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